

꿈이룬 양현종 '생애 최고의 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KIA 안치홍(2루수) 대리 수상 김민호 코치·김선빈(유격수)·양현종(투수), 롯데 손아섭(외야수), KIA 베니디나(외야수) 대리 수상 김태용 코치. 뒷줄 왼쪽부터 KIA 최형우(외야수), 롯데 이대호(1루수), 삼성 강민호(포수), SK 최정(3루수), LG 박용택(지명타자). /연합뉴스

2017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

한 시즌에 통합 MVP·황금장갑 싸움이 최초 선수 등극
우승팀 KIA 안치홍·김선빈·최형우 등 수상자 5명 배출
최정 326표 최다 득표...이대호 6년만에 1루수부문 수상

올해 프로야구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최우수선수(MVP)인 KIA 에이스 양현종이 마침내 황금장갑도 품에 넣었다.
양현종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총 유효표 357표 중 323표(득표율 90.5%)를 획득해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받았다.
이로써 양현종은 정규리그·한국시리즈 MVP와 골든글러브를 한 시즌에 싸움이 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투수가 양현종과 더불어 20승으로 다승 공동 1위를 차지한 KIA 팀 동료 헥터 노에시(12표)였을 정도로 양현종에게 표가 완전히 쏟아졌다.

양현종은 올해 정규시즌에서 20승 6패, 평균자책점 3.44를 기록하고 한국시리즈에선 1승(완봉승) 1세이브로 KIA의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이 공로로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MVP를 독식했다.
그는 또 1995년 '야생마' 이상훈(LG) 이후 22년 만에 선발 20승을 쟁했다.
다승 공동 1위, 승률 2위(0.769), 탈삼진 3위(158개), 평균자책점 5위의 눈부신 성적을 남겨 2017년을 온전히 자신의 해로 장식했다.
양현종은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상금 1천만원), 동아스포츠대상 프로야구 부문 올해의 선수(1천만원), 스포츠서울 올해의 선수(500만원) 등 언론사 상은 물론 야구계 선배가 주는 일구사상 최고 투수, 은퇴한 선배(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 동료 선수가 선정한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에서도 올해의 선수 등 울겨울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었다.
양현종은 이날 또 한국스포츠사진기자회가 선정한 골든 포토상도 받아 겹경사를 누렸다.
2년 연속 홈런왕에 오른 SK의 '홈런 공장장' 최정은 3루수 부문에서 326표(득표율 91.3%)를 얻어 올해 최다 득표의 영예와 함께 통산 5번째 황금장갑을 쟁했다.



13일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끝난 후 KIA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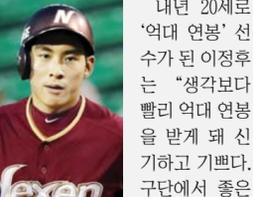
올해 최고 타자와 최고 투수로 평가 받은 최정과 양현종은 골든글러브 투표에서도 3표 차이로 최다득표 1, 2위에 자리했다.
일본과 미국을 거쳐 6년 만에 KBO리그에 복귀한 이대호(롯데)는 154표를 받아 컴백과 동시에 통산 5번째 골든글러브를 받았다. 이대호는 2010년 3루수로 한 번 그리고 나머지 4번은 1루수로 황금장갑을 끼었다.
KIA의 꼬꼬마 '키스톤 롬비' 안치홍과 김선빈은 나란히 2루수,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다.
안치홍은 140표를 얻어 NC의 박민우(134표)를 불과 6표 차로 따돌리고 영광을 누렸다. 신혼여행으로 불참한 안치홍을 대신해 김민호 KIA 수비코치가 상을 받았다.
수비 부문의 큰 유격수로는 23년 만에 타격 1위(타율 0.370)에 오른 김선빈은 253표를 얻어 경쟁자 김하성(넥센 히어로즈·86표)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김선빈 역시 프로 데뷔 후 첫 수상이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외야수 부문의 골든글러브는 로저 베니디나(190표·KIA), 최형우(215표·KIA), 손아섭(224표·롯데)에게 돌아갔다.
시즌 초반 퇴출 위기에 몰린 베니디나는 백조로 변신해 최다 안타 5위(178개), 타점 공동 6위(111개), 홈런 공동 9위(27개)에 오르며 KIA의 우승에 앞장섰다.
자유계약선수(FA)로 호랑이 유니폼을 입은 '100억원의 사나이' 최형우도 타점 2위(120개), 타율 6위(0.342)에 올라 이적 첫해 KIA 4번 타자로 우승에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8년 만에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KIA가 가장 많은 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 롯데가 2명(12표)을 뒤를 이었다.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야구용품 제조업체인 ZETT에서 협찬하는 골든글러브 트로피와 300만원 상당의 용품 구매권을 받았다. /연합뉴스

신인왕 이정후 '연봉 대박'

2천700→1억1천만원 '경증'...최고 인상률 307.4%

KBO리그에 거센 바람을 일으켰던 이정후(19·사진)가 '연봉 대박'으로 활짝 웃었다.
넥센은 13일 "이정후와 올해 연봉 2천700만원에서 307.4% 상승한 1억1천만원에 2018시즌 연봉 협상을 마쳤다."
이는 작년 신인왕 신재영의 연봉 인상률과 동일한 팀 내 최고 연봉 인상을 타이"라고 밝혔다.
뛰어난 선수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넥센은 연봉 상승률 300%를 넘는 선수가 끊이지 않는다.
김하성은 2016년 연봉 협상에서 인상률 300%(4천만원→1억6천만원)을 기록했고, 신재영이 2017년 2천700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307.4%가 올랐다. /연합뉴스



내년 20세로 '역대 연봉' 선수가 된 이정후는 "생각보다 빨리 역대 연봉을 받게 돼 신기하고 기쁘다. 구단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장석 대표님과 스카우트, 감독, 코치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폼타입으로 뛰며 프로는 역시 다르다는 걸 느꼈다. 자신감을 얻을 기회이기도 했다. 진짜 평가는 내년부터라 생각한다. 스프링캠프에 대비해 근육량을 늘리고 힘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복싱 세계챔프 최현미 완도 '전복 면장' 됐다

'탈복 복서' 최현미가 완도 전복 홍보에 앞장선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세계복싱협회(WBA) 여자 슈퍼페더급 챔피언 최현미는 지난 11일 완도군청에서 '전복 면장' 위촉장을 받았다.
최현미는 "지금까지 완도전복을 많이 먹고 그 힘으로 세계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태어난 최현미는 2001년 북한에서 아마추어권투에 입문했다. 2004년 탈북 후 한국에서 2006년 아마추어 무대를 거쳐 프로로 전향했다.
최현미는 프로 전향 후 15승 1무로 16경기 연속 무패다. 2008년 WBA 페더급 챔피언에 올라 7차 방어 후 같은 기구 슈퍼페더급 타이틀 5차 방어까지 성공했다.
복싱에만 갇혀있지 않은 최현미는 성균관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2015



최현미가 지난 11일 완도군청에서 '전복 면장' 위촉장을 받은 후 신우철 완도군수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년부터 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재학하는 등 학구열도 만만치 않다.
이날 위촉식에서 최현미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복싱 유망주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한일전을 앞둔 축구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이 13일 오전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웨스트필드에서 회복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태용호 '회복+하루 휴식+집중 대비' 한·일戰 '필승 플랜' 가동

남북대결에서 상대 자책골로 점점한 승점 3을 가져온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어지는 운명의 한일전 승리를 위해 휴식과 담금질의 적절한 조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3일 오전 일본 도쿄의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웨스트필드에서 회복훈련에 나섰다.
그라운드에는 전날 선발로 나선던 진성욱, 이재성 등 11명과 재활 중인 김민재를 제외한 선수들이 참가했다.
대표팀은 전날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북한과의 2차전에서 북한의 자책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회 2경기에서 표면적으로 1승 1무로 결과가 나쁘지 않지만, 중국과의 1차전 2대2 무승부에 이어 '2% 부족함' 무패 행진을 이어온 터라 대표팀은 16일 일본과의 최종 3차전에서만큼은 시원한 승리를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은 2연승으로 선두를 달려 한국은 일본전을 이겨야만 남자부 2연패를 달성할 수 있다.
일본전까지 사흘의 준비 시간이 있는 만큼 대표팀은 페이스를 조절하며 대비하기로 했다.
북한전 선발 11명은 이날 가벼운 회복훈련을 진행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아지노모토 웨스트필드에서 1시간가량 미니게임 등을 통해 몸을 풀었다.
경기 이틀 전인 14일에는 선수단 전체가 하루 휴식하기로 했다. 시즌을 마치고 올산 조기 소집부터 이어온 강행군을 잠시 멈추고 피로 해소에 집중하는 차원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피로가 많이 쌓여 하루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면서 "오늘과 내일(14일) 중 언제 설지 등은 코치진이 어제 경기 이후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기 전날인 15일에는 정상훈련을 통해 최종 점점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FC U-18 김정민, 잘츠부르크 이적

킵·패스·폼 '기성용 판박이'...세계 유망주 60인 선정
구단간 이적 합의...계약기간 5년·내년초 공식 철차



지난달 26일 열린 대교 눈높이 전국 고교 축구 왕중왕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김정민. /광주FC 제공

프로축구 광주FC U-18 김정민(18)이 FC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이적한다.
광주FC는 12일 오스트리아 1부 리그 FC 레드불 잘츠부르크 구단과 협상을 통해 김정민을 이적시키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잘츠부르크는 그동안 김정민의 영입을 위해 끊임없이 관찰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잘츠부르크와 위성 구단인 2부 리그 리퍼링의 훈련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광주는 잘츠부르크의 적극적인 구애와 함께 선수의 더 큰 성장을 돕기 위해 이적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정민은 "잘츠부르크 입단은 큰 영광이다. 큰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3년간 광주에서 배웠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큼은 광주를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성용 광주FC 단장은 "김정민은 훌륭한 신체조건을 갖췄을 뿐 아니라 패스, 스피드, 득점력 등 모든 걸 두루 갖춘 유망주"라며 "선수의 성장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적에 합의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큰 선수로 성장에 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박희중기자 ehsql01@kjdaily.com